

학교 앞 문방구·서점 옛말 이젠 주먹밥·컵밥이 대세



중고등학교 주변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학교 인근에 문방구와 서점이 많았지만 요즘 이들 대신 주먹밥 등을 파는 분식집이 늘고 있다.

목포 죽교동 분식집 늘어 바쁜 아침 학생들에 인기

‘학교 앞 문방구’는 옛말이다. 이제 ‘학교 앞 주먹밥’이 대세다.

목포지역 중·고등학교 주변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학교 인근에 문방구와 서점이 많았지만, 요즘은 문방구와 서점의 길을 걷고 있다. 대신 주먹밥 등을 파는 분식집이 늘고 있다.

목포시 죽교동 인근, 이곳에는 덕인중·고를 비롯한 헤인여·중고, 흥일중·고 등 모두 6개 학교가 밀집돼 있다. 6개 학교의 재학생은 대략 3000여명. 이들이 ‘잠새와 방안간’처럼 들리는 곳이 바로 학교 앞 분식집이다. 50m 거리에 주먹밥집이 4곳이나 성업 중이다.

중고생들은 매일 아침 ‘10분만 더’ 잠과의 전쟁을 벌인다. 등교시간에 쫓기고 아침을 거르기 일쑤. 이들에게 엄마 손(?) 역할을 해주는 곳이 분식집이다. 이 분식집의 주메뉴가 바로 주먹밥과 컵밥이다.

특히 주먹밥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겉보기에는 심심해 보이고 무슨 맛이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간이 맞아 간간하고 담백하면서 고소하다. 또 하나의 장점은 조리가 간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곳을 찾는 학생들 대다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탁에 앉으면 입맛도 없을뿐더러 국물 없는 아침 밥상

보다는 주먹밥이 훨씬 맛있다”고 예찬론을 폈다.

다소 생소한 ‘컵 밥’은 컵라면에서 따온 것으로, 그릇 대신 컵에 밥을 담아 비벼서 먹는 일종의 비빔밥이다. 들어가는 재료가 만만치 않아 영양 면에서도 결코 아침 밥상에 뒤지지 않는다. 게다가 학생들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재료를 첨가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멸치, 떡갈비, 계란, 치즈, 돈가스, 동그랑땡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단, 한 종류의 식재료를 추가할 때마다 500원, 혹은 1000원씩 가격이 추가되는 점은 단점이다.

덕인중 학생들이 즐겨 찾는 번개분식은 상호만 큼이나 조리시간도 빨라 시간에 쫓기는 학생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6개 학교의 등교시간은 오전 8시. 따라서 오전 7시 20분부터 55분까지가 가장 바쁘다.

학생들이 주로 분식집을 찾는 시간대는 등교시간 직전, 중학생과 고등학교 생 정규수업 종료 이후 1시간 남짓, 보충수업이 끝나는 시간대 등 하루 세 차례다.

번개분식을 운영하는 조정화(48)씨는 “등교시간 직전에는 밀려드는 학생들로 땀 뉘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 아침에는 남편의 손까지 빌리고 있다”면서 “6개 학교 학생의 10~15%인 300~500명 정도가 매일 아침 주먹밥을 찾는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남행열차 포차를 아시나요”

목포시가 ‘남행열차 타고 목포 9미’ 당기는 목포로 구경가세’를 슬로건으로 2016목원 음식문화 축제(일명 먹통 축제)를 30일과 10월 1일 이틀 동안 중앙식료시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목포시는 11일 “남행열차 포차를 통해 목포 정서가 담긴 향토 음식을 널리 알리고 세계 각국(다문화)의 다양하고 이색적인 음식문화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발굴된 다양한 먹을거리를 상가활

남행열차 타고 목포음식 즐기세요

목원 음식문화축제 30일~10월 1일

성화의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축제에서 13대의 남행열차 포차를 선보인다. 이 포차에서는 버스킹, 추억의DJ, 즉석가요제, 트로트공연, 도전 기네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

다.

또 ‘목포음식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시장 상인·다문화 가족·대학생·일반인 등이 참여해 전통음식, 다문화음식, 퓨전음식 요리 경연을 펼친다.

중앙식료시장 특설무대에서는 아트퍼

포먼스, 시장 록 패션쇼, 락 페스티벌 등 공연이 열리고 웨프의 푸드 토크, 시장 아줌마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옛날 간식 판매장, 옛날 음식 판매장, 다문화 전통음식 판매장, 목포 문화 홍보관, 드라이플라워 공예, 목포 청년작가 갤러리, 펠라비즈 체험 등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관람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체험 행사들도 선보인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노적봉미술관, 목포 유일 공립미술관 역할 ‘톡톡’

개관 7년 전시 업그레이드

잇단 시민 발길 문화 충족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이하 노적봉 미술관)이 목포지역의 유일한 공립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독특하고 차별화된 기획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전시를 통해 서울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개관 7년째를 맞은 노적봉 미술관은 매년 분기별로 연간 3~4차례 전시를 선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4년에 전문 큐레이터를 보강하면서 전시 수준이 회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열린 ‘예술의 끝없는 진화-다매체 융합’ 기획전이다. 이 전시는 미술인들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 속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켜 6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다매체를 융합시킨 새로운 장르의 작품과 비닐·실 등 합성소재를 사용한 작품들을 전시해 ‘미술작품 재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게 미술관 큐레이터의 설명이다. 이는 지금까지 지역민들이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도 미술관은 시민들의 문화적



올해 마지막 전시인 ‘자연에 대한 예술의 궁극적 탐구! 眞·善·美 기획전모습.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개최된다.

소외감 해소를 위해 수준 높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를 마련했다.

이 전시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엄마의 삶’을 주제로 삼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포기했던 것에서 벗어나 어머니 자신을 위해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는 한 인간이자 여성으로서의 어머니를 인식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선사해 호평을 받았다.

이어 노적봉 미술관은 올해 마지막 전시로 ‘자연에 대한 예술의 궁극적 탐구! 眞·善·美’ 기획전을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서양화·문인화·수채화·서예·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

품이 전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이 자연에 대한 예술적 탐구를 주제로 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시는 3개 섹션으로 나누어 자연의 이상적 속성인 진(眞), 선(善), 미(美)로 구성됐다.

박운희 미술관 담당은 “외유내강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자 생태계 속에 존재하는 생명체로서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삶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연계프로그램으로 6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미술관 속 작은 영화관’이 처음으로 시도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기간제 근로자 469명 생활임금 적용

1인당 22만원 인상 효과

목포시가 도내 22개 시·군 중 처음으로 기간제 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급여인상을 통한 복지 개선에 나섰다.

목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69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활임금 시급이 7546원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6470원)보다 16.6% 높아 급여 인상 효과가 있다.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를 환산하면 157만114원으로, 올해보다 월 22만 8364원을 더 받는 셈이다.

시는 지난 5월 목포시의회 문경연 의원이 발의에 따라 나눔복지 구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기치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기간제 근로자들을 배려하고자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며 “연간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제일정보중고 평생교육원, 성인문해 시화전 최우수상

79세 수강생 고초강씨 수상

목포제일정보중고 부설 평생교육원(원장 허재심)에서 교육생인 고초강(여·79) 어르신은 2016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전국 성인 문해 교육 시화전’에서 최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수상했다.

‘내 이름 세 자 겨우 꿈꿔꿈꿔/ 내 아이들 이름 겨우 더듬더듬/ 아이들 학교 통신문에 얼굴만 붉으랴// 아버지날 건네준 아이들 편지에 고개만 끄덕끄덕/ 그랬

던 내가// 카톡! ‘엄마, 지금 뭐해?’/ ‘김치 담는다’(중략)/ 어느새 내 손에서 / 뒤흔 날아다니는 글자들/ 인생 업그레이드!’

‘인생 업그레이드’라는 그의 작품이다. 고초강 어르신은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지내다 초등학교 1학년 해방과 함께 귀국해 목포에 정착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배움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70세가 넘는 나이에 배우기 시작한 한글은 그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정적인 촉매

제가 됐다.

고초강 씨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고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글 쓰기를 좋아해 한글을 익히고 나서부터 8년 동안 일기를 계속 쓰고 있으며, 지금도 받아쓰기 시험을 볼 때마다 100점을 맞고 싶어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며 “배움의 길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6년 전라남도 문해교육 시화전에서는 마양임(여·61)씨의 ‘행복을 주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작품이 전남도지사상을 수상해 겹경사를 맞았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전남지역 어디든 무료출장

"불만족 100% 환불"

"울리지 않고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 착한 보청기"

출장문의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